

## 천리마시대 북한 시의 서정적주인공\*

The lyrical main character in North Korean poems  
during the era of Chollima

조안나(고려대학교)\*\*

김수복(단국대학교)\*\*\*

차례

- |                                |                         |
|--------------------------------|-------------------------|
| 1. 들어가며                        | 3. 천리마시대 북한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 |
| 2. ‘서정시’와 ‘시인’, ‘시적 화자’의 인식 태도 | 4. 나가며                  |

### 1. 들어가며

본고는 천리마시대 북한 시에 나타난 ‘서정적주인공’을 중심으로 시인과 시적화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 한 편에는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화자)과 듣는 사람(청자), 그리고 시 밖의 시인(창작자), 독자가 존재한다. 이 때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 혹은 시적화자라고 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상이하다. 대부분 시적화자라는 용어로 합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서정적 자아, 시의 화자, 서정적 주인공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적화자는 시인의 분신 혹은 대리자로서 페르소나(persona)라고 할 수 있다. 페르소나는 시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시인의 주제의식에 맞게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7326). 이 논문은 2016년 4월 20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6회 국내학술대회 ‘횡단과 이주: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2)’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시의 분위기 형성 및 주제구현, 배경 묘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시인의 대리자 혹은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적화자가 북한에서는 왜 ‘서정적주인공’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며, 어떠한 역할을 하며, 시인과의 거리는 어떠한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본고는 왜 천리마시기를 선택한 것인가? 그동안의 북한 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한국전쟁 또는 해방기 시기, 1990년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정시 연구나 시의 성격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거시적 관점으로 북한 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별 특징 또한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한 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천편일률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천리마시대라는 한정적인 시대를 선택하여 북한시를 바라볼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파폐해진 북한은 국가를 재건축해야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주민들의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조차 없었다. 전쟁 직후에는 동독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 물자 구호를 받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식량 보급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다. 나중에는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 원조도 감소하게 되어 자체적으로 경제를 부흥시켜야만 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전후 패허 속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급속도로 농업집단화를 강행하였으며,<sup>1)</sup> 1957년 국민경제발전 제 1차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천리마운동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는 어느때보다도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사상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시기였다.

“조선인민은 머지않아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상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입니다.”<sup>2)</sup>

1) 장인숙, 『북한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 ‘천리마운동’에서 ‘제2 천리마대진군’까지』,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7쪽.

2) 『김일성저작집』 11권, 1981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교시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독려한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흰 쌀밥’, ‘고깃국’, ‘비단옷’, ‘기와집’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들은 자신들이 노력만 하면 곧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북한에서는 대중들을 교화시킬 때, 주로 문학작품 혹은 문학예술을 통하여 전파한다. 1947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한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은 북한의 공산당이 문예운동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결정에는 문화예술이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세워져 있으며, 문화예술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 대중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에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곧바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인들에게 하나의 복무 조항으로 강요되었음은 물론이다.<sup>3)</sup>

비록 이러한 점이 천리마 시기에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아니며, 북한의 전 세대를 통틀어서 나타난다. 또한, 이 때는 나름 북한 문학만의 특수성이 갖추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의 지위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 문학작품 창작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던 시기이다.

그동안 북한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sup>4)</sup> 천리마시기 북한시를 집중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오성호, 신지연, 노혜경, 이지순의 연구가 있다. 신지연은<sup>5)</sup> 구체적으로 천리마시대를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414쪽.

4)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보이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월북문인 해금조치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당시 북한문학 연구는 자료 소개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후 김윤식, 김재용, 최동호 등에 의하여 북한문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시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질적차이를 보인다. 북한시에 관한 연구는 김대행에서 시작되어 김재홍, 김재용, 장용남, 시원섭, 홍응희 등에 의하여 작품 분석에 기초한 연구로 변화되었다. 2000년 이후 오성호, 김재용 등에 의하여 비판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남송우,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화회, 2005, 59-83쪽.)

1950년대 북한 문단의 서정의 딜레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서정’, ‘서정적 주인공’, ‘서정서사시’의 문제를 다루었다.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 대두되는 과제는 부르주아 문학 잔재의 청산이었는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서정이라는 말은 오히려 북한 문학 담론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1951년 무렵 제기된 ‘서정성의 빈곤’이라는 문제는 ‘서정적 전형’의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고, ‘서정적 주인공’ 및 ‘서정서사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서정적 주인공’에 대해 분석하면서 서정적 주인공의 개념의 기원을 살펴보고, 당시 ‘소비에트 문단의 논쟁이 북의 문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북한에서 ‘사실주의 리얼리즘 안에서 서정시에만 고유할 수 있는 문예학적 술어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하였다. 결국 1950년대 전개된 서정시에 관한 논의들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된 흐름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sup>6)</sup>

오성호는<sup>7)</sup> ‘천리마대고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천리마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시기 북한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리듬과 속도를 인민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천리마 기수’의 형상을 내세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시는 ‘수령 혹은 당과 인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한편 공산주의 낙원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국토를 심미화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천리마 기수의 형상’이란 ‘국가와 당이 제시하는 비전을 수용하고 생산 현장에서 기꺼이 신명을 바치는 노동자, 농민’이며, 생산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어 천리마시대 북한의 특징으로 ‘항일 혁명’의 이미지와 지도자에 대한 ‘숭

5) 신지연, 『‘서정’의 딜레마-1950년대 북한 문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6) 그에 따르면 1951년은 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대로 이 시기는 “서정성의 빈곤”이라는 언급이 주를 이루고, 북에서 창작되는 시 ‘내부’에 숨어있는 ‘형식주의’의 잔재를 찾아내는 일이 주요과제였음을 파악하였다. 1954~58년 사이에는 서정시에 대한 ‘도식주의’ 비판론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문학계에서 ‘서정’과 ‘서정시’에 관한 쟁점이 일어난 시기라고 하였다.

7) 오성호, 『천리마대고조기(1958-1967)의 북한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20, 한국시학회, 2007.

배'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목가적인 서정시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풍요로운 공산주의 낙원의 환상과 결합되면서 국토를 심미화'하여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연은 미래의 풍요로운 공간, '약속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다양한 천리마 기수와 풍요로운 공간 등의 이미지를 그린 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일반화하는 수준에 그쳤거나 전형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노혜경은<sup>8)</sup> 국가와 시인의 관계를 서정적주인공이라는 용어의 개념 변천을 통해 북한의 문학내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인과 국가, 서정적주인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1959년에서 1967년, 1967년에서 1992년까지 시기를 나누어 용어의 변천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이제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정적주인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시기를 다루다보니,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천리마 시기에 대한 분석이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론적 영역에 치중하여 시 작품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지순은 천리마 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재로 천리마 시기의 북한 서정시에 대해 주목했다.<sup>9)</sup> 이 중 노동영웅의 이미지와 서사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천리마시대의 노동영웅 이미지의 기원과 형상을 살펴면서, 천리마시기와 속도 담론을 연관시켰다. 이를 통하여 천리마시대 및 천리마운동의 노동 이미지의 변화 과정과 함께 천리마 기수에게 부여된 '형상'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천리마와 천리마 기수가 문학 안에서 어떻게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연구에

8) 노혜경, 『북한에서 국가와 시인의 관계 연구 : '서정적주인공'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9) 이지순, 『천리마시대 노동영웅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5; 『북한 시문학의 여성 노동영웅 형상화 고찰』, 『國文學論集』 20,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북한서정시의 서사지향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10, 한국시학회, 2004; 『1950년대 북한 시문학의 통속적 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서 북한서정시의 서사지향성을 분석하면서 ‘서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북한에서의 서정은 ‘사상이 감정의 흐름을 타고 정서적으로 펼쳐진 것’이라고 하며, 서정시는 주관화된 감정이 아닌 당대의 전형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주로 평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당시 북한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토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 물론 작품을 평가한 평론들도 중요하고 시대와 문학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치중하거나 작품 이외의 것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작품의 명확한 특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시인과 시적화자의 관계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천리마시대 북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서정시’와 ‘시인’, ‘시적 화자’의 인식 태도

남한과 북한의 문학 용어 개념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점이 많다. 그리고 남한에는 없는 용어도 북한에 존재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북한의 시를 바라본다면 명확하게 그들의 시를 분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창작된 시를 통하여 시인과 시적화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북한에서의 서정시와 시인, 시적화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서정시란 무엇인가? 다음은 『문학예술사전』의 한 부분이다.

서정시 : 외부세계에 의하여 환기된 인간의 사상, 감정, 지향 등을 직접 표현하는 문학형태. ... 서정시의 주인공은 서정적 주인공이다. 서정적 주인공은 시인 자신일수도 있고 제3자가 될수도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서정시문학에

서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 감정, 지향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문제로부터 윤리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서정시가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서정시는 이름그대로 서정성을 어느 시형태보다도 풍부하게 체현하고 있다.<sup>10)</sup> (밑줄은 필자)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정시란 ‘인간의 사상, 감정, 지향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형태’이다. 남한에서 ‘인간의 주관적 정서나 세계를 그린 다’는 의미의 서정시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표현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치적 문제에서 윤리도덕적 문제, 자연현상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상과 시대정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흔히 서정시라 함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즉 주관적으로 적은 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서정시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시대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감정의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사상, 감정, 지향’이라고 표현된 것의 실상은 북한의 ‘사상’과 ‘시대정신’인 것이다.

다음으로 시인과 서정적 주인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인 : ... 시인은 현실에 대한 정서적 체험세계를 서정적 묘사방식으로 현상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생활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 체험과 탐구는 시인이 갖추어야 할 창작가적 자세이며 우수한 시작품창작의 전제조건이다. ...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하여야 내용이 깊고 서정성을 풍부히 구현한 시작품들을 훌륭히 창조해낼수 있다.<sup>11)</sup>

서정적 주인공 : 서정시의 주인공. 서정적 주인공은 시에 형성된 사상감정의

10) 사회과학원 주체문화연구소, 『문학예술사전(중)』,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44쪽.

11) 위의 책, 339쪽.

담당자로 된다. 서정시에서는 객관적 현실에 있는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체험하고 느낀 시인의 사상감정을 직접 토로하므로 시인 자신이 주인공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은 시인분아니라 임의의 인물이 될수도 있다.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서정시문학에서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과 지향, 감정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다.<sup>12)</sup>

남한과의 큰 차이점은 ‘서정적주인공’이라는 용어의 차이이다. 문학예술사전을 통해 찾아본 시적화자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러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정적주인공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선 시인과 서정적 주인공의 정의를 보면 시인과 서정적 주인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사상’이라는 표현이다. 시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시를 쓸 때에도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보다는 자신이 체험한 일에 대해서 사상감정을 직접 토로해야 한다. 이 때, 사상감정은 ‘노동계급이 혁명적 사상과 시대정신을 체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서정적 주인공의 역할도 시인의 역할과 비슷하다. 서정적 주인공이 임의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인이다. 때문에 서정적 주인공은 ‘시에 형상된 사상감정의 담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문학이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을 구현하며,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작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점은 평론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작가에게 ‘현실체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들끓는 생활 현실 속에서 바로 시대정신의 정수를 잡아 내여 독자들의 가슴

---

12) 위의 책, 244쪽.



속에 작렬하는 불꽃을 안겨 주는 그러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인민들을 혁명적 투사의 사상으로 교양해야 할 과업이 더욱 첨예하게 제기된다. … 《…작가, 예술인물은 이 보람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우수한 문예 작품들을 세상에 내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 위업에로 고무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sup>13)</sup>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작가 예술가들에게 또 한 번 간곡한 교시를 주셨다. … 천리마 현실 속으로 들어 가지 않고 또한 천리마 기수들을 알며 사랑하지 않고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는 것이다. … 수상 동지의 교시와 같이 아직 일부 우리 작가들 속에는 신비주의가 남아 있다. 작가란 특수한 인간으로 자처하며 앉아서도 상상력으로 능히 천리마 시대를 쓸 수 있다는 그릇된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사상-신비주의를 마셔야 한다. 우리가 실화 한 편을 쓰자 해도 공장에 나가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성의를 가지고 공장에 가지만 하면 실화 한 편이 아니라 수편을 쓸 수 있는 희한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수도룩하다. 부분적 작가들이 실화마저 쓰지 못 하는 원인은 그들이 현실로 들어 가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정열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화 한편을 쓰기 위해서도 들끓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sup>14)</sup>

위의 첫 번째 글은 로금석의 글로, 김일성의 교시를 토대로 작가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에게서 ‘작가는 사람들의 사상 개조와 혁명을 고무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듯, 북한에서의 작가의 역할은 독자라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을 고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를 토대로 작가 로금석은 사상 사업분야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13) 로금석,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 창조와 작가의 시대적 감각』, 『조선문학』 173,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115쪽.

14) 한철야,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받들고』, 『조선문학』 161,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1, 4-5쪽.

이어지는 인용문은 한설야의 글이다. 그는 아직도 현실 체험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작가에게 일침을 가하며, 다시 한 번 현실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작가의 상상력은 현실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 체험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해 여러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실체험을 하지 못한 작가들을 ‘신비주의가 남아 있다.’라고 표현하며,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평론과 교시는 앞의 정의에서 보듯이 시대 정신의 구현이 작가의 현실적 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시인은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현실 체험을 통해 시를 창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 시적화자(서정적 주인공)은 어떤 성격일 띠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다음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천리마시대 북한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는 자료는 『조선문학』이다. 왜냐하면 『조선문학』만큼 꾸준히 편찬되어 나오는 잡지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시 뿐만 아니라 소설, 평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학작품이 실려있어 당시의 면모를 파악하는데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조선문학』에서는 천리마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1958년 11월호에서는 ‘천리마의 기세로’라는 주제로 천리마에 대한 하나의 챕터가 구성되어 있다. 이 이후 천리마와 관련된 문학작품들은 많이 창작되어 왔으며, 1962년, 1963년 들어서는 『조선문학』 잡지에서 천리마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사라졌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1957년 이후부터 1963년까지의 『조선문학』에서 선별적으로 시를 선택하여 보도록 하겠다.

북한에서의 시 창작은 매우 활발한 편이며,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는 『조선문학』만 하더라도 한 호에 최소 5편 최대 10편 정도의 시가 매번 실리고 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천리마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1958년부터 1963년 정도까지 간행된 『조선문학』은 약 46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천리마를 주제로 한 시가 몇 편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를 보아서는 천리마를 주제로 한 것인지 일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시에 직접적으로 ‘천리마’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것과 ‘천리마’를 주제로 한 평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를 선별하여 논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논의의 진행방법은 시 속의 서정적주인공에 대해 구분하고,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서정적주인공의 형상

서정적주인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시속에서 직접적으로 ‘나’라고 제시되어 있는 주인공과 서사를 이야기해주는 관찰자, 그리고 나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그것이다.

(가)

남색 로동복을 한 팔에 듬뿍 안고  
나는 숨가빠 천막에 뛰어 든다,  
얼마나 바라던 것이나  
펼쳐 보고 뒤쳐 보는 로동복  
이제 입으면 이것은 나의 날개.

목은 옷 훨훨 벗어 던지고  
팔·소매 꿰는데 누군가 말했네  
-50년 여름이 생각나네그러

이렇듯 뿔뿔 옷을 벗고  
보위색 군복을 바빠 갈아 입던...

오늘 다시 조국 위해 탄원해 온  
나는 영예로운 로동복을 입는다.  
구수한 검은 흙 혼솔마다 아직 새롭고  
발머리 이슬' 길에서 젖던 흰 양복을 벗고  
당이 부르는 탄부의 옷을 입는다.

새옷 앞가슴에 락장을 옮겨 말고  
어깨 들어 한껏 가슴을 펴 본다.  
힘찬 바위틈에 적을 소던 그날  
막섬의 진동에 억세여진 이 가슴팍에  
착암기의 진동을 받으며 가리라.

다시 보자, 탄' 줄기 잠든 곳  
흰 구름 우에 솟은 묵방산이여,  
활짝 천막을 젖히고 나서노니  
-어디 거뤄 보자!  
나는 숨을 길게 마시며  
주먹에 지고시 힘을 준다.

백하, 『로동복을 입는다』<sup>15)</sup>

(나)  
헐떡이며 달려 온  
선동원을 에워 싸고  
농민들은 듣는다  
이 날도 또 하나 천리마 소식.

---

15) 『조선문학』 1958년 11월호, 94쪽.

《자, 보세요  
기양 농기계 공장 노동자들이  
빠것이 만들었어요  
천리마호 트랙토르를…》

농민들은 들여다 본다  
신기롭게 회한하게  
사진도 막 달리는 것 같은  
자랑스러운 천리마호 트랙토르를,

선동원은 더 힘을 돋군다,  
《또 보세요 그들은 래년에  
삼천 오백 대를  
우리 농촌에 보내 준대요》

농민들은 솟아 오르는 감격에 주먹들이 쥐여진다,  
꽉 틀어 잡는 손' 길  
로동 계급의 뜨거운 악수를 느끼며,

농민들은 샘솟는 큰 힘을 간직하며  
가없는 조합별 바라보는데  
무연한 함주 백리' 벌로  
금방 트랙토르 달려 오는 듯…

아, 같고 심고 가꾸어 거두는  
그 모든 일 손에 가벼울  
농업 기계화의 선봉  
천리마호 트랙토르의 새 소식이어!

김복원, 『천리마소식』<sup>16)</sup>

(다)

서서히 물러가는 눅눅한 안개,  
엇갈리며 뻗어 오르는 철군의 수풀,  
그 사이로 아득히 저 멀리서  
푸름푸름 다가 오는 조각난 하늘...

땅 위에 두고 못 갈 미련이 있나  
별무리 이쉬운 듯 노을 속에 찾아 들고,  
허공에 가득 푸르게 번뜩이는  
수천 수만의 용접광... 용접광...

깊이 빨아 삼키는 담배 맛이여,  
속살로 스며 드는 차분한 랭기여,  
기둥에 높이 걸린 스피카에서  
장엄하게 시작되는 애국가의 주악이여,

달래일 수 없구나!  
가슴을 치며 뛰는 세찬 피'방울...  
아, 교대 없이 휴식 없이  
바쳐도 못 다할 뜨거운 마음...

함께 타며 뛸자, 새벽이여! 아침이여!  
심장을 그대로 뿔아 올릴 듯  
창공에 가득 찬 불같은 태양이여!  
너를 머리에 이고 오늘 또 하루  
트럭의 전선, 승리의 진군은 시작되누나.

김철, 『건설장의 새벽』<sup>17)</sup>

---

16) 『조선문학』 1959년 2월호, 98쪽.

17) 『조선문학』 1959년 1월호, 35쪽.

쉽게 접해보지 못한 북한 시의 특성상 시 전문을 실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세 개의 시는 전술한바와 같이 다양한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보여준다. (가)의 경우, 시 안에서 ‘나’라는 주체가 등장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은 반박의 여지없이 ‘나’라고 할 수 있다. 2연에서 제3자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한다. 또, 그는 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라는 존재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시의 주체는 ‘나’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끊임없이 노동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 이 또한 로금석의 평론에서처럼, 생활속에 직접 침투하여 시를 창작한 ‘시인’을 나라는 존재와 등치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의 경우, 시의 마지막 부분에 ‘무진대 청년 탄광에서 1958.7’이라는 기록을 보아 시인이 직접 무진대 청년 탄광에 가서 직접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가)처럼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서정적주인공이라고 추정할 인물에 대한 언급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관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동원을 예워 싸고’, ‘농민들은 듣는다’, ‘농민들은 들려다 본다’와 같은 표현들은 농민의 무리에서 떨어진 존재가 그들을 관찰하며,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때의 서정적주인공은 사건 안에 있는 인물도 아닌 ‘제3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 또한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는 앞서 이야기한 관찰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관찰자라함은 사건의 동태를 살펴보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 시는 한 무리의 사람을 관찰하거나 사건을 살펴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 속의 시선을 통하여 풍경이 묘사되고 감정이 묘사되고 있다. 즉, ‘나’라고 지칭되지는 않지만, 시 속에 들어가 사건을 진행시키는 ‘시 속의 주인공’이 서정적주인공이라 하겠다.

북한의 작가들은 현실이 반영된 시를 요구받았고, 이로인해 현실체험을 통한 시 창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체험과 함께 ‘창작’

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요청받고 있었다. 그렇기에 관찰자며, 시 속의 주인공과 같은 다양한 서정적주인공을 창조해낸 것이다.

## 2) 서정적주인공의 역할

다양하게 형상화된 서정적주인공은 그렇다면 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인용한 시 일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의 경우, 노동자로서 자신이 갖는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고, 열정적인 노동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남색 로동복을 얼마나 바라던 것이냐’, ‘영예로운 로동복을 입는다’와 같은 표현은 자신이 노동자로서의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이다. 마지막 5연에서 표현된 ‘나는 숨을 길게 마시며 주먹에 지고시 힘을 준다’라는 표현에서 열정적인 노동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됨을 알 수 있다.

(나)의 시는 일종의 정보 제공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선동원’이라는 인물이다. 선동원은 농민들에게 ‘자, 보세요/기양 농기계 공장 로동자들이/땀젖이 만들었어요’, ‘또 보세요 그들은 래년에/삼천 오백 대를 우리 농촌에 보내 준대요’와 같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기대감과 천리마시대의 밝은 미래에 대해 심어주고 있다. 일종의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당의 업적을 인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선동원이라는 존재는 당의 소식을 전하는 노골적 인물상이라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역할로는 풍경묘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조선문학』 1958년 12월호에 실린 『평양은 잠자지 않는다』라는 시이다.

밤은 깊어도 좋구나  
물 ‘새도 끼룩끼룩…  
호안 공사에 밤을 새우는  
대동강에 은하수 내려 앉았다.



이런 밤에 어찌 잠잘 수 있느냐  
자구만 노래 솟구치는데,  
미끼샤 소리에, 자갈 부는 소리에  
돌 까는 소리에, 강물 흐르는 소리에...

저기 저 대성산에도 해 ‘불 올랐다  
길 닦는 굽이굽이에 모닥불 모닥불,  
청년 거리로 내닫는 6층 옥상에도  
용접하는 불꽃, 기중기 조명등...

(하략)

위의 시는 깊은 밤 대동강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깊은 밤 대동강변은 물새가 끼룩끼룩 울고, 산이며 굽이굽이 길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1연의 “끼룩끼룩”이라는 표현과 2연의 “자구만 노래”, “미끼샤 소리”와 같은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청각적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3연에서는 “해불”, “모닥불”, “불꽃”, “조명”과 같은 표현으로 인해 빨간색 불빛에 대해 시각적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이 시는 대동강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풍경묘사를 통한 평양의 밝은 이미지와 함께 노동에 대한 의지 및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잠자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즉 깨어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노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개발에 대한 욕망, 빨리 개발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바로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왜 ‘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논자는 노동에서 오는 ‘비극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북한 시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국토의 개발’을 이룰 수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농기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삶에 있어서 노동은 힘들고 치열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

완공보다 앞서 밀물이 닥쳐  
초조하고 위험한 시각이 왔네, 그러나  
기적을 창조하는 장수들이 있는데야  
강물도 막아 낼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야,

이때 청년 하나이 물을 향해  
소리 내며 철썩 물을 안고  
가슴으로 물을 막기 시작하니  
한 사람 또 한 사람, 열 스무 사람,

억센 팔 서로 끼고 안은 방파제가 생겼네  
밀물을 설새없이 청년들의 가슴 우에  
설레이듯 철썩거리는데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물을 안고 있네,

...

불 밝고 아름다운 산보로가 된  
평양을 안고 도는 대동강 우보도는  
이런 청년들의 다함없는 로력으로  
아름다운 로력을 이룩되었소.

김귀련, 『청년 돌격대』<sup>18)</sup>

대동강 호안 공사장에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묘사한 시다. 콘크리트 작업을 끝내려는 찰나에 밀물이 들어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한 청년이 나아가 맨 몸으로 물을 막자 여러 청년

---

18) 『조선문학』 1959년 2월호, 100쪽.

들이 함께 물을 막는 모습으로 시는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이 일구어낸 결과는 ‘아름다운 로력’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인 노동자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이라는 주체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청년돌격대는 천리마 시기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로 하여금 힘있는 노동자를 표현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인간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청년이라는 젊고 밝은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시기를 그려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청년들의 역설적인 모습도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면의 비극성 때문에 천리마 시기에 서정은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이란 무엇일까? 위에 제시한 시처럼 비극성을 덮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며, 인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감정이 서정이 아닐까?

#### 4. 나가며

‘감정’이라는 것의 고찰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이다. 더군다나 서정이라는 큰 범주의 것은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서정이라는 실체를 추적하여 천리마시대 북한시의 서정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남한과는 다른 관념을 가진 북한의 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말하는 서정시, 서정적주인공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시하였다. 물론, 전 시기를 살핀 것이 아닌 천리마시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시만을 살펴 전체적인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서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립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하지만, 기간을 정하여 초기부터 논의를 한다면 오히려 천리마시기의 서정의 확대에 대해 구명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서정시’와 ‘시인’, ‘시적 화자’의 인식 태도를 사전의 정의  
를 통해 살피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서정시  
란 ‘인간의 사상, 감정, 지향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형태’로 정의  
내리고 있지만, ‘로동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상과 시대정신을 전제로 한 감정을 서정시에  
녹여내고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서정적주인공의 양상에 영  
향을 미친다.

서정적주인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시속에서 직접적  
으로 ‘나’라고 제시되어 있는 주인공과 서사를 이야기해주는 관찰자, 그리  
고 나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그것  
이다. 시인은 시 안의 주인공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지만, 현실체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시를 읽는 독자로하여금, 한정된 면만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삶의 모습, 천리마 시대의 역동적인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인은 곧 시 속의 주인공이지만, 그 모  
습이 나가 되기도 하고, 관찰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조선문학』에 실린 시를 대상  
으로 천리마시대의 북한시의 서정적주인공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여  
전히 한정된 텍스트, 한정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  
게 탐색되지는 못했다. 또한 본고에서는 스케치적 서술을 했을 뿐 보다  
정리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차후 수정·보완하기로 하겠  
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 천리마 시대의 서정적주인공에 대한 명확한 좌표  
를 제시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김일성저작집』 11권.

『문학예술사전』

『조선문학』

《문학예술대사전》 DVD.

###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3. 논문

남송우,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화회, 2005.

노혜경, 「북한에서 국가와 시인의 관계 연구 : ‘서정적주인공’을 중심으로」, 북한대학 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송숙이, 「북한에서의 이찬 시의 정치적 대응과 변모양상」,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2012.

신지연, 「‘서정’의 딜레마-1950년대 북한 문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오성호, 「천리마대고조기(1958-1967)의 북한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20, 한국시학회, 2007.

이지순, 「천리마시대 노동영웅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5.

\_\_\_\_\_, 「북한 시문학의 여성 노동영웅 형상화 고찰」, 『國文學論集』 20,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_\_\_\_\_, 「북한서정시의 서사지향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10, 한국시학회, 2004.

\_\_\_\_\_, 「1950년대 북한 시문학의 통속적 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장인숙, 「북한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 ‘천리마운동’에서 ‘제2 천리마대진군’까지」,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최정숙, 「북한시의 한 고찰」, 『한어문교육』 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Abstract

The lyrical main character in North Korean poems  
during the era of Chollima

Jo Anna  
Kim Soo Bok

In a poem, there exist a speaker, hearer and the poet and readers outside the poem.

At this moment, the person who speaks in a poem is called a speaker, or poetic speaker, and in North Korea, people are using the term of ‘a lyrical main character’ to refer to the speaker. Giving an eye to this point, this writing is intending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et and poetic speaker centering on the ‘lyrical main character’ manifested in North Korean poems during the era of Chollima M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the lyrical main character by limiting a period to the era of the so-called Chollima. The hitherto research on North Korean poems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tudy into lyrical poems in general, or poetic properties mostly targeting the Korean War, or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1990s. In a bi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like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poems in North Korea have been concentrated in a specific era, and engaged in a monotonous analysis of them, this study looked at the North Korean poems by choosing the limitative period of the era of Chollima.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recognition attitude towards the terms of ‘Lyrical poem’, ‘Poet’, and ‘Poetic speaker’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meaning marked in 『Dictionary of Literature & Arts』,

North Korea seems to guarantee literary feelings, but in reality, they put restrictive conditions that all art works should express the ideology and the spirit of the times of North Korea.

Next, this study looked into how the poetic speaker is exposed in actual poems through 『Chosun Munhak』. The lyrical main character can be roughly into three sorts, i.e. the main character which is suggested as ‘I’ in a poe, an observer who delivers a narration, and a central character in a poem though not specified as ‘I.’ These lyrical main characters carry out various role respectively like pride as a worker, and aspects of supplying information of the era of Chollima, etc.

Lastly, this study briefly looked into why they sing lyricism in the era of Chollima which is in need of work. From their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work must be fierce for certain, but the aimed work during the era of Chollima is what they should definitely achieve, and also their goal of life. That’s why there exist beauty and tragic properties together in work of this period. Therefore, this study makes a cautious conjecture that they might be using lyricism with more emphasis in an effort to cover up such a tragedy.

주제어: 천리마시대(The era of Chollima), 서정적 주인공(Lyrical main character),  
서정시(Lyrical poem), 시적화자(Poetic speaker)